

“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토론회 개최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목소리 청취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맞는 산업재해노동자의날 추모 주간(4.28.~5.4.)을 맞아 산재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유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2026. 4. 29. 13:30 ‘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대표, 산재단체 대표 및 산재노동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여 산재를 당하고 직접 산재보상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 치료와 요양, 재활의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산재보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직장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치료가 완료된 후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 지원과 산재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류현철 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한 보호범위 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체계 구축 및 조기 치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터로의 복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직접 산재노동자와 직접 소통하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붙임 1. ‘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행사 개요
2.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인사 말씀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철홍 (044-202-8830)
		담당자	사무관	김군자 (044-202-8836)
			주무관	신동걸 (044-202-8837)

□ 일 시: '26. 4. 29. (수) 13:30~15:40

□ 장 소: 씨밋원 서울역 회의실 * 서울 중구 통일로 10

□ 참 석 자: 60명여 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산재보상정책과장 곽철홍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이사 성덕환, 보험급여국장 윤주영 등

○ (산재유가족단체 및 산재단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 김미숙, (사)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회장 진명환,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최성복 회장, (사)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민동식 회장, (사)원진산업재해자협회 황동환 회장,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이완배 회장,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권영현 회장, (사)중앙진폐재활협회 회장 이희탁 및 산재노동자 등

□ 세부 일정

※ 인사 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5	참석자 등록	· 자료배부
13:35~13:45	'10	개회 참석자 소개	· 사회자
13:45~13:50	'5	인사말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3:50~15:30	'100	현장의 소리 정책응답 현장 질의답변	· 산재노동자 · 산재단체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15:30~15:40	'10	마무리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입니다.

오늘, 산재단체 운영 등을 통하여 산재노동자의 복지와 재활을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 여러분을 모시고 산재노동자 보호 및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김미숙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두 번째를 맞이한 산업재해노동자의날이었습니다. 산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을 추모하며, 요양 중인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산재보험은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작년 2025년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8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전의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산재보상에 대한 수요로 인해

업무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산재로 인한 아픔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부는 작년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의견 들으면서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보완을 추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재해 위험이 높으나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두터운 안전망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예술인,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되,

면밀한 재해 요인 분석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병행하겠습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과 장애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산재노동자의 복지와 직업 복귀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현재 산재보상부터 재활, 일터 복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듣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일상으로의 복귀, 직업으로의 복귀를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오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